

# 思春期 綜合徵에 관한 인식

賈春華<sup>1</sup> · 周春祥<sup>2</sup> · 王天山<sup>3</sup> · 崔勳<sup>4\*</sup>

1: 中國 承德醫學院 中醫系, 2: 中國 南京 中醫藥大學 基礎醫學院 傷寒論 教研室,  
3: 中國 南京 中醫藥大學 中藥學院, 4: 又石大學校 藥學大學 韓藥學科

## Recognition about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

Chun Hua Jia<sup>1</sup>, Chun Xiang Zhou<sup>2</sup>, Tian Shan Wang<sup>3</sup>, Xun Cui<sup>4\*</sup>

1 : Depart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hungde University of Medicine  
2 : Department of Sanghan-theory,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3 : Department of Chinese herb,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4 : Department of herbalogy, College of Pharmacy, Woosuk University

Nae-Kyung says the puberty is corresponded to the age of 16~24(male) and 14~21(female). And that time they are promoted the growth. However, Kidney qi(腎氣) doesn't make average situation during that time. So, the function of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 fails to be perfect and symptoms appear. I came to the conclusion through the survey of about 200 high school students(male and female) and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the distinctive features (like migraine, amnesia, depression, dysphoria, inappetence, irregular menstruation) came out that time. I defined this distinctive symptoms in boys and girls at puberty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 For the medical cure and prevention I prescribed 'Sachun-Nyung' and that has medical benefits for 'Replenishing qi and relieving the spleen(益氣養陰), Soothing the liver and promoting blood circulation(疏肝活血)'

Key words :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思春期 綜合徵), Kidney qi(腎氣), Sachun-Nyung(思春寧)

### 서 론

思春期란 心身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時期로 性的 成熟의 관점에서 變化를 보이는 時期이다. 이 時期에는 특히 身體的 變化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데 그에 따른 몇가지 症狀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臨床經驗에서 觀察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思春期에 나타나는 變化와 약간의 病症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적으로 解消된다고 알고 있다. 물론 이러한 變化들은 思春期이라는 時期를 지나면 스스로 解消된다. 그러나 入試에 시달리고 있는 靑少年들에게 心理的 負擔을 덜어주고 身體的인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研究를 시작하였다. 이에 본 著者は 이러한 점에 焦點을 맞추어 思春期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內經』을 바탕으로 韓醫學的인 觀點에서 解釋하고 設問調査를 통해 確認, 證明해 보았으며 이를 治療할 수 있는 處方을 構成하였다.

### 본 론

#### 1. 思春期(puberty)에 대한 정의

思春期에 대해 醫學的으로는 身體의 成長에 따라 性的 機能 이 활발해지고, 2차 性徵이 나타나며 生殖機能이 完成되기 시작하는 時期라고 정의한다. 男子는 精液의 生産, 女子는 初潮를 징표로 볼 수 있다. 時期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개 12, 13에서 15, 16세 사이에 나타난다. 心身 兩面으로 成熟期에 접어드는 靑年期(adolescence)의 前半에 해당하는 時期로서 性的 成熟의 觀點에서 그 變化를 보이는 時期라는 뜻으로 思春期(puberty)라고 하였다. 그러나 靑年期와 思春期을 同義語로 併用하는 수도 있고, 英國과 美國에서는 靑年期를 思春期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思春期는 性的 成熟이 현저하게 눈에 띄며, 2차 성징이 나타나 남성다운 體格이나 여성다운 체형을 갖추기 시작한다. 男子는 變聲과 함께 가슴이 두꺼워지면서 어깨도 넓어지고, 女性의 경우는 骨盤이 넓어지면서 乳房도 發育하고 자태도 풍만해지기 시작한다. 性器의 성숙과 함께 生理的 性慾이 강하게 나타나며 性에 대한 관심과 性的 衝動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의 成績 行動을 알

\* 교신저자 : 최 훈,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cuixunws@hotmail.com Tel: 063-290-1579  
· 접수: 2002/08/02 · 수정: 2002/08/31 · 채택: 2002/09/25

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肉體的 變化와 함께 感受性이 고조된다. 또한 自我意識도 높아지고, 周圍에 대한 否定的 態度도 강해지며, 拘束이나 干涉를 싫어하며 反抗의인 경향으로 치닫는 일이 많고 정서와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心身 兩面으로 少年期에서 어른이 되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心身 發達상 完成의 段階는 아니다<sup>1)</sup>. 한의학적으로는 『素問·上古天眞論』에서 生長, 發育, 生殖을 추진하는 腎氣와 年齡段階에 따라 人體의 成長過程을 구분하였는데 “女子가 七歲가 되면 腎氣가 盛하고 齒가 다시 나고 髮이 자라고, 二七이 되면 腎氣가 實하고 天癸에 이르며 任脈이 通하고 太冲脈이 盛하여 月經을 하게 되므로 有子할 수 있다. 三七이 되면 腎氣가 平均해져 眞牙가 생기고 成長이 極에 달한다. 四七이 되면 筋骨이 堅해지고 頭髮의 자람이 極에 이르고 身體가 壯대해지고 五七이 되면 陽明脈이 衰弱해지기 시작하여 얼굴이 憔悴해지고 毛髮이 떨어진다. 男子가 八歲가 되면 腎氣가 實해지고 齒가 다시 나고 髮이 자라고 二八이 되면 腎氣가 盛해지고 天癸가 이르고 精氣溢瀉하여 陰陽이 和하면 有子할 수 있다. 三八이 되면 腎氣가 平均되고 筋骨이 勁強해지므로 眞牙가 생기고 成長이 極에 달한다. 四八이 되면 筋骨이 隆盛하고 肌肉이 滿壯해지고 五八이 되면 腎氣가 衰弱해져서 毛髮이 빠지고 齒牙가 마르게 된다.”<sup>2)</sup>고 하였다. 이 時期 중 思春期에 해당하는 時期로는 女子의 경우 二七~三七, 男子의 경우 二八~三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三七(三八) 以前에는 腎氣가 점차 充盛해지고 完成되는 시기로 天癸가 생성되므로 生殖腺의 發育이 促進되지만 아직 腎氣는 平均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臟腑機能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2. 思春期(puberty)의 生理的·病理的 특징

思春期の 成長은 腎과 天癸의 相互作用에 의해 이루어진다. 腎氣는 “先天之本”으로 人體 生命活動의 근원이 되고 腎氣의 盛衰에 의해 人體의 生長壯老死가 결정된다. 腎氣는 腎陰과 腎陽으로 나뉘는데, 腎陰은 물질적 기초로서 각 臟腑를 滋養하고 腎陽은 기능적 측면에서 溫厚, 推動作用을 하는 것이다. 陰陽은 相互對立, 相互制約, 相互依存하여 상대적 平衡인 “陰平陽秘” 상태를 유지한다. “陰平陽秘”에서의 陰陽은 단순히 絶對的인 平衡이 아닌 相對的인 平衡으로 成長期에는 陽의 기능적 작용이 陰의 물질적 작용보다 相對的으로 강하고 陽이 陰에 비해 약간 많은 상태이다. 陽이 陰보다 조금 많지만 病的인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相火”라고 하는데 이는 몸의 각 臟腑에서 機能活動을 하도록 推進하고 溫厚作用을 하여 人體를 微溫한 상태로 維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東醫古典에 의하면 “相火는 命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君火와 함께 五臟六腑를 溫養하고 그것의 機能活動을 돕는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三七(三八)이전에는 腎氣가 아직 平均을 이루지 못한 시기로 “陰”은 각 臟腑를 滋養하기 위해 消耗되므로 恒常 不足하며 陰陽은 互根互用하기 때문에 “陽”은 相對的으로 “有餘”하게 되어 相火가 많이 생긴다. 이 相火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陰平陽秘 상태에서 벗어나 쉽게 火로 변하여 邪氣가 되고 妄動하며 旺盛해져 上炎하게 된다.

腎陰은 父母로부터 받은 生長, 發育, 生殖을 推進하는 先天

之精氣에서 주로 來源하며 部分的으로 後天之氣인 脾胃의 生化에 의한 水穀精微에 의해 不斷히 充養받는다. 단, 主要作用은 先天之氣에 의하며 後天之氣는 附次的으로 先天之氣를 얻어 化生된다. 또한 後天의 脾胃功能活動은 반드시 先天之氣의 溫煦作用이 發揮되어야만 正常的으로 推動될 수 있다. 先天腎氣가 平均하지 못하여 相火가 相對的으로 旺하고 後天之本인 脾胃는 相對的으로 功能이 完全하지 않아 脾虛가 유발된다. 그러므로 氣血化源이 不健하여 氣血生化가 不足해지기 때문에 肝血의 不足을 초래하게 되고 동시에 血의 滋養濡潤作用이 떨어져 柔肝養肝이 不能하게 된다. 肝은 ‘體陰而用陽’으로 肝의 藏血(調血)作用과 疏泄作用사이의 關係는 매우 密接하다. 그러므로 肝血이 不足해지고 藏血機能이 失調되면 肝의 疏泄作用도 失調되어 결국 肝氣가 鬱滯된다. 肝氣가 鬱滯되고 有餘한 것은 邪火가 되어 쉽게 相火가 旺盛해지는데, 이 肝火는 五行의 母子關係에 따라 心火를 上炎케 한다. 또한 脾虛하면 肝血虛하여 肝氣가 鬱滯되고 肝鬱은 다시 脾土를 犯하므로 脾胃의 升降, 運化기능이 저하되어 계속적인 脾虛를 招來하게 된다. 그리하여 脾가 虛하면 脾의 運化기능이 저하되어 水穀精微의 運化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腹脹, 倦怠, 消瘦 등이 나타나고 水濕의 運化저하되어 頭脹如裹, 胸脘痞悶, 帶下의 症狀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脾의 統血機能까지 失調되면 下部爲主의 出血이 발생하여 功能性 子宮出血이 나타날 수도 있다. 血虛하면 血의 濡養機能이 상실되어 面色蒼白 或萎黃, 頭暈眼花, 經閉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肝의 疏泄기능이 失調되면 情志上 肝은 喜條達하고 惡抑鬱하므로 鬱症 즉, 善太息하고 煩燥하며 易怒, 躁憂 등이 나타나고, 痰氣가 鬱結되어 上逆하여 梅核氣가 나타날 수 있으며 月經不調, 痛經이 발생한다. 이 肝鬱은 다시 脾土를 犯하여 消化不良, 食慾不振을 초래한다. 心은 主血脈, 主神志하므로 心神失養으로 말미암아 心神不安, 失眠, 多夢, 健忘, 譫妄 등이 나타나고 血脈의 循行이 순조롭지 못해 心悸, 怔忡, 心煩, 失眠, 多夢, 易驚, 健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腎陰虛는 水不上濟하므로 心腎不交하여 虛火上炎하여 心火를 搖動하여 煩熱, 失眠 등이 나타나고 陰虛하여 肝陽이 上亢하면 頭暈目眩 등이 나타난다.

또한 腎氣가 平均하지 못하고 脾胃가 不足하며 心肝火가 旺하므로 有形物質인 氣, 血, 津液은 虛하게 되고 循環障礙를 유발하기 때문에 滯, 痰, 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上述한 內容을 요약하면 腎氣의 不平均으로 인해 나타나는 脾虛血虛, 肝鬱, 心腎不交로 인해 여러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 3. ‘思春期 綜合徵’에 대한 認識과 診斷基準

상술한 바와 같이 思春期에는 腎氣가 平衡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陰陽이 失調된다. 또한 後天之本인 脾胃는 先天之氣의 溫煦作用에 의해 發揮된다. 그런데 腎氣가 不平衡하고 陰陽이 失調된 상태에 있으므로 脾胃의 機能은 당연히 虛해진다. 그러므로 氣血化源이 不健하여 氣血生化가 不足하게 되기 때문에 肝血의 不足을 초래하게 되고 동시에 血의 滋養濡潤作用이 저하되어 柔肝養肝이 不能하게 된다. 이에 따라 肝血이 不足해지고 藏血이 失調되면 陰陽의 互根互用의 관계에 따라 肝

의 疏泄作用도 失調되므로 결국 肝氣가 鬱滯된다. 이는 즉 邪火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相火가 旺盛해지며 이는 心火의 上炎을 유발한다. 또한 '木克土'하기 때문에 肝鬱은 다시 脾土를 犯하므로 脾胃의 升降, 運化기능이 低下되어 脾虛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病機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上述한 내용을 確認하기 위해 男·女 高校生 각각 200여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Fig. 1,2,3,4,5,6,7). 그 중 思春期 青少年에게 偏頭痛, 健忘, 抑鬱, 煩躁, 食欲不振, 月經不調과 같은 증상을 臨床에서 자주 觀察할 수 있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思春期 青少年에게서 이러한 症狀이 보이는 현상을 '思春期 綜合徵'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徵'은 辭典적으로 '徵兆, 兆朕, 現狀'의 意味가 있는데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症'의 뜻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徵'이라 表現하였다.

이러한 '思春期 綜合徵'이 思春期 青少年에게서 恒常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上述한 症狀중 3가지 이상의 症狀이 1개월에 1회이상 나타나고 이것이 4~5日 정도 持續되는 것을 診斷 基準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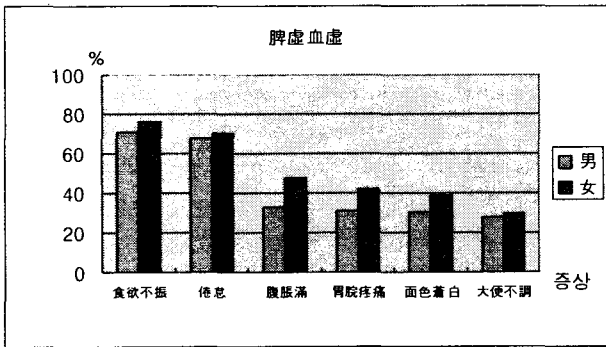


Fig. 1. I surveyed the cause of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 which was caused by blood deficiency due to spleen definition(脾虛血虛). It showed the regular sequence. : inappetence(male 71%, female 76%), weariness(male 68%, female 71%), abdominal distention(male 33%, female 47%), epigastralgia(male 31%, female 42%), pallor(male 30%, female 39%), constipation(male 28%, female 30%). Generally speaking, the frequency of complaining of a pain was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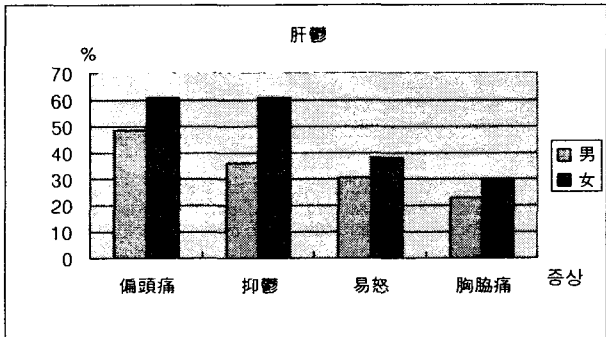


Fig. 2. I surveyed the cause of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 which was caused by stagnation of the liver qi(肝鬱). It showed the regular sequence. : migraine(male 48%, female 61%), depression(male 36%, female 61%), resentment(male 30%, female 38%), pain in chest and hypochondrium(male 23%, female 30%). Generally speaking, the frequency of complaining of a pain was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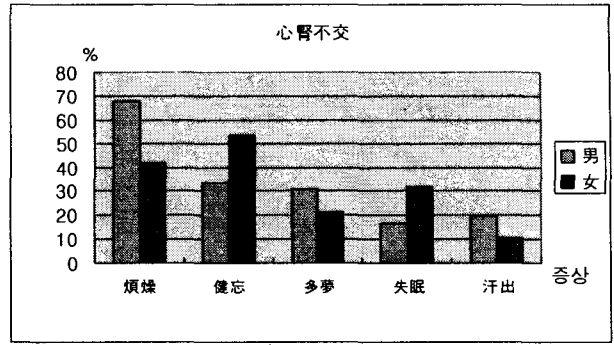


Fig. 3. I surveyed the cause of 'Synthetic Symptoms of Puberty' which was caused by disharmony between the heart and kidney(心腎不交). It showed the regular sequence. : dysphoria(male 68%, female 42%), amnesia(male 33%, female 54%), dreaminess(male 31%, female 21%), insomnia(male 16%, female 32%), excessive sweating(male 20%, female 11%). The frequency of complaining of the dysphoria, dreaminess, excessive sweating was higher in males than females, and amnesia, insomnia was higher in fe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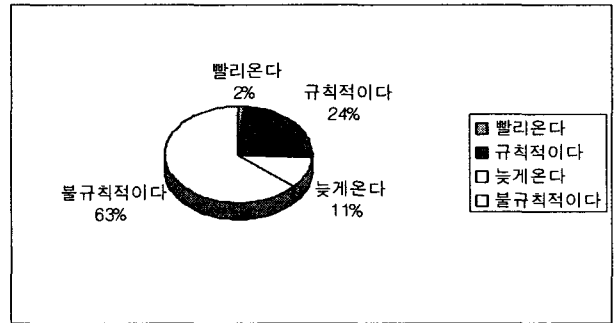


Fig. 4. I surveyed the normality of menstrual period and it showed irregular(63%), regular(24%), be delayed(11%), ahead of tim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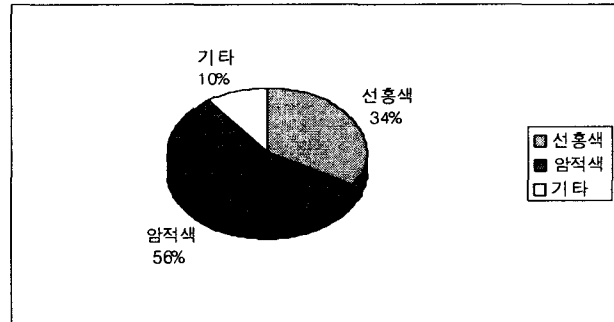


Fig. 5. I surveyed the color of normality of the menstrual blood and it showed dark red(56%), scarlet(34%), and others(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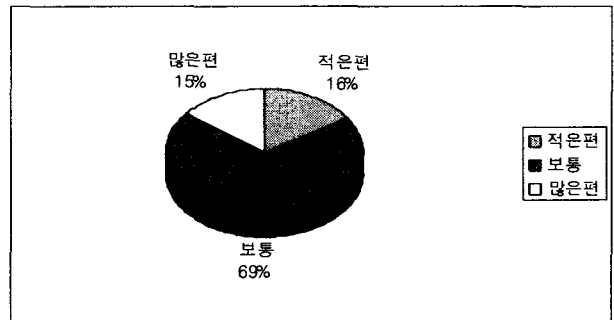


Fig. 6. The quantity was showed ordinary(69%), small(16%), to excess(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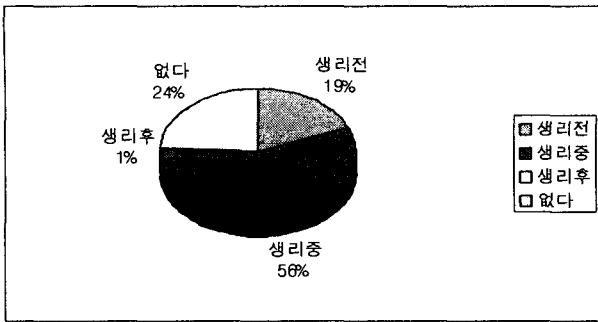


Fig. 7. I surveyed the menstrual pain and it showed on menstruation's way(56%), have no pain(24%), before menstruation (19%), after menstruation(1%).

4. '思春期 綜合徵'의 治法과 處方

脾虛血虛, 肝鬱, 心腎不交로 인한 思春期綜合徵은 脾와 肺, 心氣를 補하여 生血, 統攝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한다. 그리고 理氣하여 疏肝하고 心火를 清하며 活血化瘀하고 除濕한다. 또한 陰血을 補益하게 되면 火가 스스로 降할 수 있기 때문에 肝腎의 陰血을 滋補하여 다스려야 한다. 요컨대 '益氣養陰, 疏肝活血'함으로써 '思春期 綜合徵'을 輕減하고 豫防할 수 있다. 思春期綜合徵을 治療하기 위해 益氣養陰, 疏肝活血할 수 있는 "思春寧"을 造成하였다. 이 方劑는 炙黃芪, 熟地黃, 炒白芍, 柴胡, 炒梔子, 生牡蠣, 丹蔘, 茯苓, 遠志, 神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의 構成藥物에 대한 性味, 歸經 및 效能, 藥理作用등에 대한 解説은 다음과 같다. 炙黃芪는 性味가 甘, 微溫하고 肺, 脾經에 入하여 益氣健脾, 補肺한다. 脾는 後天之本으로 水穀精微를 取하여 氣血生化之源이 되며 肺는 一身의 氣를 主管하는데 黃芪는 능히 脾肺의 氣를 補할 수 있으므로 脾肺氣虛症狀를 治療하여 脾氣가 虛하여 氣血을 生化하지 못하여 생기는 血虛症狀에 적용할 수 있다. "氣爲血之帥, 血爲氣之母"의 관계가 있으므로 黃芪를 重用하여 脾肺의 氣를 大補하여 益氣하면 血을 化生하는 能力이 强해지고 生血之源을 풍부하게 하여 補血한다. 이는 有形의 血은 自生할 수 없으나 無形의 氣에서 生하므로 氣脫者는 그 氣를 補함으로써 "陽生陰長"토록 하여 氣를 旺盛하게 하고 血을 生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益氣健脾하여 脾主統血作用을 도와 崩漏, 便血을 治療하고 益脾하면 五行의 母子關係에 의해 肺氣도 補하여지고 더욱이 味가 輕하고 氣가 浮하여 升清陽氣하므로써 內臟을 昇舉할 수 있다. 그리고 血의 運行은 氣의 推動作用에 依存하여 일어나므로 補氣하면 生血, 活血할 수 있다. 本方에서는 黃芪를 重用하여 健脾益氣하면 生血攝血하므로 君藥으로 삼는다.

熟地黃은 生地黃의 性味가 甘苦, 寒하고 心, 肝, 腎經에 歸經하여 清熱涼血하는 것에 비해 寒性이 減少하여 養血滋陰, 補精益髓한다. 즉, 그 味가 厚하고 氣는 薄하여 主로 腎臟의 眞水를 補하고 兼하여 脾土를 培養하여 滋腎陰하며 脾胃를 滋養하여 腐熟作用을 돕는다. 그리하여 眞陰虧損이나 血虛한 경우에 補血하고 滋陰하는 要藥이 된다. 그러나, 그 性이 緩하고 守而不走하여 滋膩하므로 量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 效果를 보기 어렵다. 用量은 대개 4g에서 최대 20g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本方에서는 量을 많이 쓰되 臣藥으로 사용하여 益氣養陰의 效能을 높이므로 量을

15g으로 한다.

炒白芍은 性味가 微寒하고 苦酸하여 肝, 脾經에 入하여 養血斂陰, 平抑肝陽의 效能이 있다. 芍藥의 酸味는 肝經의 血分에 入하여 氣를 收斂하고 肝液을 收斂하여 氣의 妄行으로 인한 血虛證狀 즉 月經不調, 經痛, 自汗, 盜汗을 治療하고 肝氣가 收斂되어 木이 土를 乘하지 못한즉 土가 편해져 入脾하여 養血할 수 있다. 苦微寒한 性味는 世熱하여 柔肝止痛시키고 平抑肝陽할 수 있다. 本方에서 炒白芍을 熟地黃과 配合하여 心血不足과 腎陰不足으로 인한 心悸나 頭暈, 月經不調를 治療하므로 이들 두 藥을 合用하여 같이 臣藥으로 삼는다.

柴胡는 苦, 辛, 微寒하고 肝으로 歸經한다. 柴胡의 辛味로써 肝鬱을 疏散하는데 이 때 氣血虛로 인한 虛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本方에서는 柴胡를 佐藥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黃芪를 도와 升舉陽氣하고 血液을 統攝하여 脈中에 循行하도록하여 功能性子宮出血을 治療한다. 또한 白芍藥과 配伍하여 一斂一升하여 養肝하므로써 肝의 本래기능인 疏泄, 藏血機能을 正常的인 生理活動으로 恢復시킨다.

炒梔子は 苦, 寒하고 心, 肺, 胃, 三焦經에 入하여 瀉火除煩, 清熱利濕, 涼血한다. 梔子의 苦寒한 性味는 清泄하여 三焦의 火를 瀉하고 小便을 利하게 함으로써 清熱瀉火하고 入心하여 肝火에 의해 生成된 氣分實熱인 心의 火邪(母子關係)를 消瀉하여 清心除煩하고 煩躁不安을 해소한다. 本方에서는 炒梔子를 佐藥으로 사용한다.

牡蠣는 性味가 微寒, 鹹하여 肝, 脾, 腎經에 入하여 平肝潛陽, 收斂固澁의 效能이 있다. 牡蠣는 性이 寒하고 質이 重하여 肝陰不足으로 인한 肝陽上亢 症狀 즉, 煩燥不安, 心悸失眠, 頭暈目眩을 治療하고 收斂固澁의 效能이 있어 遺精, 帶下, 崩漏에 사용한다. 本方에서는 黃芪와 함께 自汗, 盜汗을 治療한다.

丹蔘은 苦, 微寒하여 心, 心包, 肝經에 入하여 祛血瘀, 養血安神의 效能이 있다. 血瘀는 心의 과다한 神志作用에 의해 發生되는 內的인 血熱 혹은 溫熱病邪의 熱이 營血에 入하여 血의 疏通을 막아 發生된다. 丹蔘의 苦味는 熱入營血에 의해 저해를 받아 생긴 心火熱을 降泄하여 煩燥를 治療하고 苦寒한 性味는 祛瘀新血하므로 瘀滯를 祛하여 血脈을 通行시켜 養血하므로 丹蔘一味는 補血의 聖藥이라 일컫는 四物湯과 견줄 수 있다.

茯苓은 性味가 甘淡, 平하고 心, 腎, 脾에 入하여 利水滲濕, 健脾寧心의 效能이 있다. 甘味는 入脾하여 補脾하며 淡味는 滲濕하며 그 性이 和平하므로 能히 補中氣, 健脾胃, 滲水濕할 수 있어 脾氣虛로 인해 脾胃에 內停되어 나타나는 水濕을 없애 자연스레 脾의 기능을 도와서 健脾作用이 있다. 또한 茯苓의 氣는 先昇하여 清肺化源하고 後降하여 腎의 機能을 도와 腎機能이 쇠퇴하는 데도 效果가 있다.

遠志는 辛苦, 溫하고 心, 腎經에 들어가 寧心安神의 效能이 있다. 心은 主神志하고 藏神하며 思惟, 意識活動은 지배하는데 精血이 풍부하여 心血이 充滿하는 경우에는 精神狀態가 明哲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敏捷하게 된다. 遠志의 辛溫한 性味는 宣泄通達하여 腎에 들어가 腎氣를 도와서 心氣에 通하게 하므로 安神益智하여 心神不安, 失眠, 心腎不交, 健忘등을 治療하고 腎氣를

도움으로 인해 九竅가 이로워져 心竅를 막고 있는 痰飲을 제거하여 痰阻心竅로 인한 病症인 정신혼란, 정신착란등을 治療한다. 心血을 充足히 하여 思惟活動을 높이는 작용을 돕는다. 本方에서 遠志는 黃芪, 熟地黃과 같이 쓰여 養血, 寧心安神 作用을 나타내서 健忘症과 志意不足을 治療한다.

神麴은 甘,辛溫하여 脾,胃經에 入하여 行氣消食, 溫中健脾한다. 神麴은 6가지의 약재를 醱酵하여 만든 것으로 무릇 醱酵한 약품은 健脾胃하여 소화를 돕는 效能이 있다. 甘溫한 性味는 溫中하므로 脾胃의 機能을 도와주는 效能을 발휘하여 牡蠣과 같은 廣석 물질약의 胃害를 防止한다.

## 결 론

이상과 같이 '思春期 綜合徵'에 대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思春期綜合徵'이란 思春期에 腎氣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陰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症候群들을 總稱하는데 이 시기는 臟腑組織이 形態上으로는 완성되었어도 그 機能活動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後天之本인 脾胃가 虛하고 氣血津液이 不足하며 氣血津液도 內停하게 된다. 이에 따라 肝腎陰血도 不足하게 되며 肝氣도 鬱滯된다. 또한 肝鬱이 邪火가 되기 때문에 心火가 上炎하게 된다. 그 중 偏頭痛, 健忘, 抑鬱, 煩燥, 食慾不振, 月經不調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思春期 綜合徵'이라 하며 이것의 病機

는 脾虛血虛, 肝鬱, 心身不交로 인한 것이므로 '益氣養陰, 疏肝活血'함으로써 治療할 수 있다. 思春期에 나타나는 症候群을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를 '思春期 綜合徵'으로 認識함으로써 口苦에 시달리고 있는 思春期 青少年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2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1. 세계대백과사전, 두산, 서울, 1999.
2. 洪元植, 黃帝內經素問注釋(上), 慶熙大學校出版部, 서울, 1999.
3. 龍致賢 : 漢英中醫藥辭典, 中醫古籍出版社, 中國, 1994.
4. 崔昇勳 : 內經病理學, 통나무, 서울, 1999.
5. 康寔錫, 南德茲, 李相度, 張皓得 : 進明中韓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2000.
6.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 本草學, 永林社, 서울, 1999.
7. 郭受延 : 實用 單方驗方 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中國, 1997.
8. 余新華 : 中醫病機, 中國醫藥科技出版社, 中國, 1997.